“나누면 따뜻해요”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대원불교조계종
종정 청봉



성현과 옛 조사님들이 세상 넘칠 만큼 좋은 말씀을 많이 해 놓았건만 어디 부처님 말씀이 모자라서 중생세계가 이 모양인가?
생자필멸(生者必滅) 회자정리(會者定離), 모든 생명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다는 무상함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괜히 허송세월 보내다 나중에 죽음에 임박해서 후회하지 말고 세상사 모든 현상이 다 무상한 줄 알아서 마음의 집착과 아상을 버리고 부처님의 진리 말씀을 자신의 등불로 삼아 깊이 믿고 수행실천 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나와 다름이 아님 부처님 큰 뜻

현대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동화



모든 불제자 여러분과 함께 2566년 부처님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광대한 우주를 두루 보아도 부처님 존재 아님이 없으며 부처님 나라 아님이 없어서 모든 불행은 자취도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영원한 행복만이 있을 뿐입니다. 선악과 귀천의 모든 모습은 껍때기일 뿐 그 참모습들은 거룩한 부처님과 같아서 일체가 거룩하며 숭고합니다. 이는 나와 다름이 아니며 곧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경건한 마음으로 아픈 이웃을 돌아보며 부처님 오심의 큰 뜻을 마음에 새기도록 합시다.

법등 밝혀 평등 세상 이루길

(사)대한불교 법화종
종정 도선



부처님 법은 평등합니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가르침을 수지하고 지혜를 모으면 번뇌는 사라지고 법은 청정하여 모든 중생이 자비롭고 평등한 세계에서 살며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나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번뇌가 일어나는 것이고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온 세계가 그대로 극락정토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 전에 법등을 공양하여 평등세계를 이루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여 불도를 이루어 다 함께 성불합시다.

상생과 공존의 등불

(사)대한불교 법화종
총무원장 관효



부처님께서는 오직 일대사(一大事)의 인연(因緣)에 의해 중생계에 나투셨습니다. 중생들로 하여금 불지견(佛知見)을 열고(開), 보여 주고(示), 깨닫게 하고(悟), 그 길에 들게 하기(入) 위한 것이 부처가 출현한 근본 목적입니다. 서로의 마음 장벽을 허물고 반목과 질시의 울타리에 갇혀 있는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멸의 길에서 벗어나 공존의 시대를 열어가야 합니다. ‘상생과 공존의 등불’ 을 온 누리에 밝힙시다. 심신과 원력으로 내 안의 성품을 탁마 합시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탐·진·치를 등불과 같이 밝히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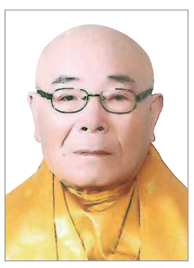
(사) 대한불교 응공조계종
종정 법운



불멸등혜장명등(不滅燈兮長明燈)이여 장명등혜불멸등(長明燈兮不滅燈)을 인인개개인인등(人人皆皆人人燈)로 세세년년세세등(世世年年世世燈)이어라 언제까지도 꺼지지 않을 등불이여 영원토록 밝아 꺼지지 않을 등불을 사람 사람마다 밝아 꺼지지 않는 등불로 세세 년 년이 밝게 비치니 영원한 등불이어라 부처님 오신 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구족한 지혜를 등불과 같이 밝히시고 탐 진 취 삼독에 물든 중생을 제도하소서.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 처럼 살아갑시다.

(사)대한불교 금강조계종
종정 법두 수암



사월이라 초파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전국방방곡곡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우주의 주인이요. 인천의 스승이며 사생육도의 어버이시고 만고광명의 등불이신 부처님께서 애민중생 제도하고자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귀천한 사람이라도 인간은 부처와 부모와 같이 모셔서 서로존경하고 서로사랑하며 가진자는 남을 도와주고 살아갑시다. 중생들이 서로 싸우고 침해하는 것은 일심동체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이니 서로의 마음을 알고 보면 싸울래야 싸울 수 없으며 해칠래야 해칠 수도 없습니다.

염불과 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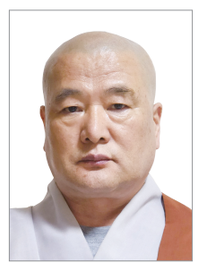
(사)대한국불교조계종승가회
총무원장 호산 성보



선 은 바로 부처님의 마음이요 교 는 부처님의 말 이니 경전의 말과 문자에 걸리지 않고 마음을 밝힐 때 선과 교는 본래 둘이 아닌 진여자성의 체용인 것이다. 또한 일체 만유의 근본 자성이 아미타불이요, 극락세계 역시 같은 자성인 청정심으로 이루어진 경계이니, 마음이 오염되면 그에 상응한 삼계육도에 윤회하는 고뇌를 벗어날 수 없으며,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오면 금생과 내세를 가리지 않고 상락아정 한 극락세계의 청정한 행복을 수용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부처님은 바로 법계를 몸으로 하는 것이니, 일체 중생의 마음 운데 들어 계시느니라.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일체처(一切處)

한국대승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혜관



人生苦樂從心起, 活眼照來萬事康, 사람의 고와 낙이 마음을 좇아 일어나고 산 눈이 비추어 올 때 온갖 일이 다 편안하네.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의 대의가 약인욕료지(若人欲了知) 삼세일체불(三世一切佛), 응관법계성(應觀法界性),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라, 일체처(一切處)에 마음으로서 짓는다. 마음 하나 잘 쓰도록 해야 되는데 마음 잘 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사람이 얼굴마다 바를 정(正)자를 써 가지고 있는데 마음은 비뚤어지게 쓰고 있다. 시익권수(示益勸修)라. 착한 것을 힘드려 잘 닦도록 권하는 말인데 온전한 마음으로서 삼매(三昧)를 닦는 자는 현세에 항상 열가지 이익을 얻는다.

칠성봉(七星奉)에 칠보등(七寶燈) 밝히고

대한불교무량종
종정 혜안



춘풍(春風)에 삼독(三毒)을 가미(加味)하니 처처(處處)에 화마(火魔)로다 심성(心性)이 극강(極强)하니 천하(天下)가 거칠도다. 광풍(狂風)에 화무삼일홍(花無三日紅)이요 업화(業火)에 세무삼년과(勢無三年過)라 백년조림(百年造林)이 일조재(一朝灰)로다 흑호(黑虎)가 좌용산(坐龍山)하려니 용호상박(龍虎相博)으로 고질병(苦疾炳)에 백약(百藥)이 무효로다. 오호라 처방(處方)은 있으되 약재(藥材)가 없구나. 지리산 칠성봉(七星奉)에 칠보등(七寶燈) 밝히고 소원이나 빌어보세.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음등불을 밝히시기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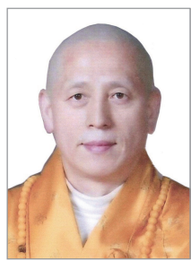
(사)대한불교 대승종
종정 동건 법경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어두운 것은 가고 밝은 것이 오리라는 염원의 등불을 밝혀 일체중생이 이고득락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을 마음속으로 불러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 흔들리는 우리들을 부처님 세계로 인도해 주십시오! 쓰라린 상처를 부처님의 하해와 같은 마음으로 껴안아 주십시오! 감사하고 베푸는 마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정진하면 언젠가 부처님전에 닿으리라는 믿음 속에 살게 해 주십시오.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며 현재에 충실한 삶을 산다면 마음속에 행복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힘으로 생사의 물결을 건너야

대한불교 전통조계종
종정 혜강당 석능인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에 대하여 설법하셨습니다. 아무런 재능도 능력도 없지만 믿음의 힘 하나로 사나운 물결도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생사의 물결도 그와 같이 건너야 한다고 설법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애를 극복하고 어떤 일을 성취 시키는 데 있어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굳건한 믿음과 맑은 눈을 지니고, 남편을 대하든, 아내를 대하든, 자식과 부모를 대하든 언제나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섬기고 받드십시오. 이러한 지혜의 눈을 가진 보살이 진정으로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귀의불 양족존 귀의법 이욕존

(사)대한선불교 원효종
종정 성우 자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누리의 생명 가진 모든 것에

함께 하기를 기원 합니다.

사성제(고.집.멸.도.) 부처님께서는

초전법륜에서 집착의 멸함을 설 하셨습니다.

대중은 보배와 같이 지니고 일상의 수행을 합시다.

